가야불교 중흥 위해 스님들 나섰다

가야불교문화진흥원,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 개최

국정사업 '가야사 복원' 이바지
9월 14~17일 김해 대성동 일원
"시민 참여 · 화합 이끄는 행사로"
문화진흥원 설립… 복원 '박차'


새롭게 창단된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 스님들 모습.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가야사 복원 사업과 가야불교 중흥을 위해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를 9월 14~17일 김해 대성동 일원에서 연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가야사 복원'을 국정사업에 포함시킨 가운데, 경남 · 김해 지역 스님들이 이에 발맞춰 가야불교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가야불교 중흥에 앞장설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인해)은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를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일원(시민의 종 앞)에서 9월 14~17일 개최한다. 가야불교문화축제는 한국 불교 최초 도래지인 김해 가야 지역을 시민에게 알리고 가야불교문화를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국정사업에 포함된 가야사 및 가야사 복원 사업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가야불교문화축제는 불교문화를 소개할 뿐 아니라 시민과 화합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진다. 이사장 인해 스님은 "불교문화 체험 뿐 아니라 야단법석 축제의 장으로 시민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야사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사원복원, 불교 유적, 불교 유물, 승시장터 등을 열고 가야불교 진흥의 역사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행사는 △불꽃놀이 및 108인 거리 행진 △선승 선공 스님 발우공양 시연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 김해사충신 영상 시청 △스님과 함께 주먹밥 5000개 공양 올리기 등이다. 시민참여 행사는 △108번뇌 마음깨기(사기점시 깨기) △짐이 가야왕이로소이다(복식 기념촬영) △대왕초 소원발원 포토존 △실버 · 주부 · 외국인 · 청소년 가요제 등이다.

이중에서도 가요제는 입상자를 위한 풍성한 상금 및 상품권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또한 '108인 거리 퍼레이드'는 14일 오후 4시 가락로 입구인 김해시 부원동 경남은행 앞에서 출발해 대성동 고분군까지 총 22km를 행진한다. 그 외 국악인 김영임, 가수 함중아, 한혜진, 비스타, 걸그룹 BNG가 꾸미는 화려한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인해 스님은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무대와 체험 행사를 마련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불자들의 정진"이라며 "가야불교중창을 위해 1080배 정진을 진행한다.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가야문화중흥기원 1080배는 9월 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번 축제는 (사)행복1%나눔재단과 산하단체 가야문화예술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다. (사)행복1%나눔재단은 지난 5년 동안 김해남산문화축제를 비롯해 김해와 인연한 무주고혼 합동 천도재를 개최했다. 이번 가야불교문화축제와 함께 제6회 무주고혼 합동 천도재를 연다. 천도재는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다.

한편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4년 전부터 김해 지역에서 가야불교 발굴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스님들을 중심으로 9월 1일 새롭게 창단됐다. 스님들은 가야불교를 위해 학술 연구로 기여하고 세미나 및 정진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김해 여여정사에서 '구지회'라는 이름으로 2014년 시작됐다. 2016년 '법등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가야불교중흥을 위한 3000배 참회대법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와 가야불교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어 가야불교 발굴에 앞장서 왔다. (055)329-7005

하성미 기자

통도사, '龍의 얼굴'로 국태민안 기원

9월 30일~11월 6일 개산 1372년 영축문화축제 개최

'귀면'이라고도 불리는 용면. 처용의 얼굴을 무늬화한 것으로 사악한 무리를 막는다고 알려진다. 통도사는 올해 개산 1372년을 맞아 그간 촛불집회, 세월호 등 국난을 겪은 나라의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용면을 1,750개 제작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1372주년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를 9월 30일~11월 6일 개최한다.

9월 30일 개막식 행사로는 △스님들의 사진전 '색즉심 심즉색(色卽心 心卽色, 오전 10시)' △오채현 작가의 천진불 조각전 '붓다미소'(오전 10시 30분) △양산 · 용면(귀면)축제-양산의 거리(오전 11시) 등이 준비됐다.

1750개 용면(龍面) 제작 전시
괘불이운, 자장율사 개산 상징
긴 연휴, 가족 위한 장소 제공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스님들의 사진전 색즉심 심즉색(色卽心 心卽色)'은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해 율원, 학인 스님 등 대중 모두가 동참한다. 전시 작품은 일반인이 평소 보기 힘든 경내 모습을 스님들이 직접 촬영해 선보인다.

또한 '양산 · 용면(귀면)축제-양산의 거리'는 성보박물관 앞 보행로를 장식한다. 통도사가 위치한 양산 지역을 상징화하기 위해 이름이 같은 양산(陽傘)에 용면(龍面)을 그려 양산시민을 반긴다. 용면 양산은 총 700개가 전시되고 용면 유화판화 1,050개도 함께 걸린다. 용의 얼굴이라해서 용면(龍面)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처용의 얼굴을 무늬화한 것이다. 용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귀면(鬼面)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 통도사 스님들과 불화장전수자들이 모여 직접 양산과 판화에 작품을 그리고 있다. 특별축하공연 '처용무'도 개막식 때 함께 만날 수 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의 태평성대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액을 막는 귀면을 특별히 장식한다"며 "최근 세월호, 촛불집회 그리고 북한 핵도발 까지 한국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민들이 평안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모두 11월 6일까지.

통도사는 특히 추석 연휴 기간임을 고려해 9월 30일~10월 9일 오후1시~3시 야외 공연장(일주문 옆)에서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공연'을 연다. 3대가 함께하는 무대 공연으로 마술, 저글링, 동요 등을 마련한다. 그 외 괘불대전 전시, 괘불조성체험, 국화장엄 등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자장 율사의 개산을 기념하는 개산대재는 10월 22일 해장보각(도서관)에서 '통도사 의례 및 의식의 재고찰' 학술대회로 시작한다. 개산대재 법요식은 10월 28일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열리며, 괘불이운 및 헌공은 10월 29일 산문주차장에서 출발해 괘불대 앞으로 이운해 진행된다.

괘불이운은 개산조인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를 이운한 것을 상징한다. 참여 대중들은 괘불 이운식에서 꽃을 뿌리며 함께 장엄하고 금강계단 앞에서 헌공 의식을 진행한다. 통도사는 "괘불이운을 무형문화재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일정은 통도사 공식 홈페이지(www.tongdos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055)382-7182

하성미 기자


통도사는 올해 1372년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를 맞아 용면을 양산과 유화판화에 제작하고 국태민안을 발원한다. 통도사 총무국장 도문 스님이 태극기가 있는 용면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부산聯 재가안거 회향

9월 1일 홍법사서 회향법회

부산 수행문화를 이끌고 있는 재가안거가 회향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9월 1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재가안거 하안거 회향법회를 진행했다.〈사진〉 회향식은 금강경 독송과 108배 정진이 이어졌고 회장 심산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의 법문이 진행됐다.

회장 심산 스님은 "안거 동안 진행한 수행, 기도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 그래서 새로운 신행문화를 열어가는 역할을 담당해주길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1년 모은 보시금 이웃에 회향해요

태고종 원광사, 백미 10kg 2200포 7개 구청 전달

부산 태고종 원광사가 추석을 맞아 '나눔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원광사는 1년 동안 모은 백미 10kg 2,200포를 부산 시민을 위해 전달했다.

원광사(주지 지광)는 9월 3일 법당에서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 법회'를 봉행했다. 나눔 법회는 원광사 신도들이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것을 회향하는 자리다. 법회를 통해 원광사는 나눔을 통한 보살행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법회는 내빈 소개, 법문, 격려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주지 지광 스님, 태고종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지성 스님, 중강강원 총동문회 부회장 일각 스님, 통도사 포교원 법진 스님이 참여했다. 아울러 권오성 부산시의원, 윤영길 원광사 신도회장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원광사는 9월 3일 법당에서 '추석절 이웃사랑 나눔 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지광 스님은 "오늘은 1년 동안 모은 나눔의 씨앗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자리"라며 "불교에서 전하는 인과의 법칙은 정확하다. 오늘 이 법회와 나눔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 보시바라밀의 힘으로 더욱 정진하자"고 격려했다.

윤영길 신도회장은 "오늘 이 법회는 그동안 우리가 부처님께 올린 공양물을 주지 지광 스님이 십시일반 모두 모아 회향하는 것"이라며 "주지 스님의 원력이 있기에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감사했다. 또 "오늘은 2017년 나눔 회향법회이지만 내년에 또 맞을 나눔법회를 위한 시작이다. 지속적으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1년 동안 신도들은 불전함 · 백미 · 백중 행사 등 보시금으로 나눔에 동참했으며 주지 지광 스님은 모든 보시금을 모아 회향법회를 열고 신도들을 격려했다. 특히 지광 스님은 개인 지원금을 후원해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백미는 동래구, 금정구를 비롯해 7개 구청에 10kg 300포를 전달한다. 아울러 금사동 및 장애인협회, 요양기관에도 전할 예정이다.

원광사 자비의 쌀 전달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 원광사는 부산 전 지역에 빠짐없이 쌀을 전달하고 아프리카 및 해외 구호 사업으로 식수 우물 파기 사업도 추진한다.

하성미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화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내년 90일 거주 (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사찰내식장, 무위사다비장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 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